

2015년 서울시 9급(B)형 해설

제공 : 유두선 교수님

1. ① 열둘째 -> 열두째 ② 떨어먹는 -> 털어먹는 ④ 솟병아리 -> 수평아리

정답 ③

2. ② 성장(成長) ③ 이상(異常) ④ 해동(解凍)

정답 ①

3. 제시된 글은 배경묘사에 해당한다. ① 서사 ② 묘사 ③ 비유 ④ 인과

정답 ②

4. ㄴ. 미래 낙관(도입) -> ㄹ. 낙관론 부정 -> ㄱ. 자연 파괴(예) -> ㄷ. 전쟁 위기(예 첨가) -> ㄷ. 낙관적 전망의 위험성(결론)

정답 ③

5. ① 덩쿨 -> 덩굴/넙쿨 ② 윗어른 -> 웃어른 ③ 지리하다 -> 지루하다

정답 ④

6. ① 보(동사)+기(접미사) -> 명사 ② 명사형(품사는 형용사) ③ 낮(형용사)+추(접미사) 다 -> 동사 ④ 꽃(명사)+답(접미사)+다(형용사)

정답 ②

7. (가)는 ‘ㅌ’이 ‘ㄷ’으로 대치 -> ㉠

(나)는 ‘ㄹ’과 ‘ㅎ’이 축약하여 ‘ㅌ’이 됨 -> ㉡

정답 ②

8. ② ‘ㄹ지라도’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. -> 있을지라도 ③ ‘대신’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 -> 예쁜 대신 ④ ‘지’는 시간 개념이 아니므로 붙여 쓴다. -> 들을지

정답 ①

9. ①, ③, ④은 통사론적 특징에 해당하고 ② 어미활용은 형태론적 특징이다.

정답 ②

10. ① 팸플렛 -> 팸플릿 ② 리더쉽 -> 리더십, 소세지 -> 소시지 ③ 쇼파 -> 소파, 썩크대 -> 싱크대, 바디로션 -> 보디로션, 수퍼마켓 -> 슈퍼마켓, 스카웃 -> 스카우트

정답 ④

11. ‘병서’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.

① 상형 ② 가획 ③ 병서 ④ 연서

정답 ③

12. <보기>의 타다는 탈 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. ④의 ‘야밤을 타다’는 어떤 조건이나 시간, 기회 등을 타다 라는 뜻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말이므로 ‘다의어’에 해당한다. 그런데 ① 복이나 재주,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. ② 악기를 눌러 소리를 내다. ③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. 의 의미로 서로 관련이 없는 ‘동음이의어’에 해당한다.

정답 ④

13. ① 금상첨화 ② 오비이락 ③ 고진감래 ④ 일거양득 주어진 지문은 갑작스레 일어난 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상황이므로 ②가 맞다.

정답 ②

14. ① 도청도설 : 거리에 떠도는 소문들 ② 심심상인, ③ 염화미소, ④ 이심전심 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.

정답 ①

15. 털을 뽑아서 신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②가 맞다.

정답 ②

16. ‘대수로이’는 ‘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’의 의미다.

정답 ④

17.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하면 새로운 도전에 노출된다. (원인) -> 따라서 도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. (결과)

정답 ①

18. ‘천변풍경’은 서울의 청계천을, ‘두 파산’은 서울 황토현을, ‘엄마의 말뚝’은 서울의 현저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④의 ‘당신들의 천국’은 ‘소록도’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.

정답 ④

19. ㉠, ㉡, ㉢은 상대와의 헤어짐, 소멸을 의미하지만 ㉣은 초월, 만남의 이미지에 해당한다.

정답 ④

20. 제시된 시조는 이별의 한을 그리고 있다. ① 봄밤의 애상적 정서 ② 늙음을 한탄하는 정서 ③ 이별의 한 ④ 교훈적 정서

정답 ③

2015년 서울시 9급 총평

이번 서울시는 문법·어휘 11문항, 문학 3문항, 독해 3문항 한자·한자성어 3문항이 출제되었다. 예년과 다른 점은 국문학사가 한 문제가 줄었고 소설이 출제되지 않았으며 독해가 1문항 늘은 점이다. 여전히 어휘에 관한 문제가 5문항 출제되어 많이 나온 점은 변함이 없다. 따라서 서울시를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은 어휘 공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. 특히 고유어를 착실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. 문법은 특이한 점은 별로 없고 예년 수준 정도가 출제되었고 고전문법은 훈민정음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. 기본 원리를 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쉬운 문제였을 것이다.